

한국천문연구원 감사부

이 은 호



감사(監事) <명사> ① 《법률》 법인의 재산이나 업무를 감독·검사하는 사람이나 그 직책.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감사의 뜻이다.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부담인 감사. 지난 9월 1일, 2년여의 파견 근무를 마치고 연구원에 복귀한 감사부 이은호 씨를 만났다.

“지난 2년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감사부장으로 있다가 복귀를 했습니다. 2년 전에 정부 정책에 따라 기관간 감사인력을 교환해서 자체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파견근무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타기관에 가서 어떻게 감사업무를 수행하나 하는 염려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연구기관이라는 곳이 어느 곳이나 행정체제는 비슷합니다. 단지 연구원들이 수행하는 연구분야가 다를 뿐이죠. 저희가 하는 일이 연구 자체를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연구업무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나 행정지원이 잘 이루어졌느냐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매일 한술밥을 먹는 동료직원들 감사한다는 게 여간 부담돼 보이지 않는다.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연구비를 집행하고 나서 나중에 감사를 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대부분 연구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정대로 집행하는지 여부를 감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감

사는 크게 일상감사, 정기감사, 특별감사로 나뉩니다. 일상감사는 평소에 집행부서에서 일상적으로 집행하는 업무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은 대부분 걸러집니다.”

매년 1회의 정기감사는 그동안 진행된 일상감사를 검토하고,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 자체 감사를 한다. 비리나 민원 등 특별한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실시하는 특별감사는, 다행히 지금까지는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1974년에 발족된 국립천문대가 1986년 3월에 천문우주과학연구소로 직제 개편이 됩니다. 그 당시 과학기술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천문우주과학연구소로 내려오면서 연구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의 파견 기간을 빼면 연구원에서 20년을 근무했네요.”

짧지 않은 기간동안 힘든 일도, 즐거운 일도 많았다고 한다.

“초창기에는 관리과장으로 오래 일을 했습니다. 예산이나 인력, 시설 모두 열악했던 시기였죠. 그 당시 예산이 15억원에 인력도 50명 정도였으니까요. 도로도 제대로 안 닦여 있어서 버스에서 내려 한참을 걸어 와야 했습니다. 저 위쪽 전파동만 있었는데, 산을 깎아 지은 곳이라 매년 폭우만 오면 흩어 밀려 내려가는 수해를 입었습니다. 직원들이 삼을 들고 나가 복구를 해야 했죠. 이런 건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었고 견딜만한 일이었지만, 심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건 1998년 IMF 때입니다.

예산, 조직, 인력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관리과장으로서 인사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었는데, 당시 97명 중 21명을 구조조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실장으로 있을 때 2003년 9월 태풍 매미로 보현산천문대 진입도로가 산사태로 유실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때 마을까지 피해를 입었는데, 천문대 건설로 피해가 커졌다는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잇달았다.

“복구 비용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전액 지원해줘서 문제가 없었는데,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니 참 힘들더군요. 당시에 보현산천문대에 근무했던 노진형 씨와, 현 총무시설안전팀 윤영재 팀장이 수시로 오가며 주민들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이 애를 썼습니다. 덕분에 일은 잘 해결되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기억으로는 1999년 본관 건물이 완공된 일이라고 한다.

“깔끔하게 지어진 새 집에 들어가니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2004년도에는 연구원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했습니다. 공식 행사와 함께, 기념음악회, 타임캡슐, 사진전시회 등을 진행했는데, 이 모든 것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파트별로 업무를 분담해서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당시 경과보고는 사회자가 말로 하는 게 다였는데, 저희가 이곳 연구단지 내에서는 처음으로 동영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연구원이 30년 간 어떻게 발전해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하는가를 동영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반응이 좋았죠.”

인터뷰 중간 중간 글씨가 빼곡히 적힌 수첩을 보면서 지난 일들에 대한 얘기를 이어갔다.

“인터뷰를 한다니까 뭔가 얘기를 해야 하겠고, 그렇게 하다 보니 지난 20여 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수첩에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본 것도 이번이 처음이네요.”

이은호 씨는 연구원에 오래 있었지만 막상 천문 분야에는 깊이 공부하지 못했다고 한다.

“아마도 그쪽은 제 적성이 아닌가 봐요. 연구분야도 잘 알면 좋겠지만, 연구하는 데 있어 지원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천문은 잘 모르지만, 행정 분야와 관련된 규정은 그 누구보다 많이 안다고 자부합니다.”

감사부장이라는 자리에 있다 보니 남들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게 되고 그에 따른 부담도 큰 게 사실이다.

“그래서 늘 행동함에 있어 부담을 느낍니다. 지금은 감사부에서 공직기강, 반부패, 행동강령 등 윤리와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를 걱정했지만, 마음을 비우고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모범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마음이

편하다는 답변에 숙연한 마음까지 든다.

“매주 직원 한 사람을 추천해 칭찬하는 ‘이주의 칭찬텔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도 추천됐던 적이 있었는데, 저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너무 꼼꼼하다’라는 것이었어요. 사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1 더하기 1은 반드시 2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원칙을 지키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라는 게 꼭 원칙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저를 그렇게 평가한 글에 ‘앞으로 좀 덜 꼼꼼하게 살려고 노력하겠다’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그게 쉬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휴가 가지 말라는 사람은 없었지만 22년간 근무하면서 휴가를 제대로 써본 적이 없다는 이은호 씨는 이제야 조금 여유가 생겼다고 한다.

“현재는 특별한 보직을 맡고 있지 않아 예전보다는 마음이 한결 편합니다. 공부도 좀 하고요. 지난해부터 충남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에 졸업을 해야 하니, 앞으로 1년간은 그쪽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연구원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 학습이나 재충전의 계기를 잡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번 기회가 제 삶과 일에 있어 재충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어보았다.

“정년퇴직도 몇 년 안 남았는데, 연구원에 기여할 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주어진 일에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겠죠. 개인적으로는 배우의 기회를 더 가지고 싶고, 학위를 마치고 나면 노후 대책도 생각해야겠죠. 지금은 학위를 마치는 것이 우선이고 다른 일들은 그 이후에나 생각하려고 합니다.”

늦게 시작한 공부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재미있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다는 이은호 씨. 앞으로 뜻한바 모든 일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본다.

